쌍호공소를 통해 본 천주교 교우촌의 성립과 변천

김정숙*

〈차 례〉

1. 여는 글
2. 쌍호공소 성립과 변천
3. 쌍호 교우촌의 신앙가계 구성
4. 쌍호 교우촌 내 신앙가계의 역할과 영향
5. 닫는 글

【국문초록】

쌍호마을은 역사가 깊은 교우촌이다, 그리고 모든 공소가 그렇듯이 쌍호공소도 일종의 생동하는 유기체이다. 즉 공소 자체가 사회의 변동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요람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회변동에 적응해 가면서 그침없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는 일은 공소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필자는 교회측 사료, 관변측 사료, 쌍호공소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우촌내에 작동되고 있던 몇 가지 특성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쌍호공소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쌍호마을은 행정지리적으로나 공소 구성원에서 변화가 많았다. 이 마을은 박해시대 신자들이 모여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891년에 이르러서야 공소가 설치되었다. 공소가 설치된 이후 쌍호공소는 낙산, 퇴강, 예천, 안동, 다인, 안계 성당 등으로 그 소속이 바뀌면서 발전해 왔다. 물론 공소의 명칭도 바뀌었다. 원래 청호리 공소라 불리던 곳이 1914년 도호동과 합쳐져 쌍호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926년까지 청호라고 불리고 있었다.

쌍호는 1리, 2리로 나뉘어 약 120여 명의 주민이 있는데, 그중 쌍호1리가 교우촌이다. 현재 이 마을은 신자들과 외교인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교우촌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쌍호마을은 200년간을 이어오면서 최소한 13개 姓氏에 속하는 22 家系가 살아왔다. 이 마을의 입향조는 본래 밀양 박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이곳에는 타성들이 들어와 합류하게 되었고, 또 떠나기도 했다. 따라서 쌍호마을의 신자들에 관한 누적 통계에서는 밀양 박씨가 숫자적으로 가장 많았다. 밀양박씨는 그들과 사돈관계였던 함창 김씨와 함께 쌍호공소 초기의 공소회장직을 맡아보면서 마을의 터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마을을 떠나, 상주와 대구 등지로 옮겨갔다. 또한 신춘원, 신기순, 류승대, 신기순 집안도 마을을 떠났다.

그래서 현재 쌍호공소의 신자구성에는 초기와는 달리 함안 조씨 가계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여러 성씨들이 상호 순차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력이 생겼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함안 조씨 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회장을 배출했고, 이 가계에 속한 사제나 수도자 수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함안 조씨 집안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각 신앙가계에서 골고루 회장, 사제, 수도자들이 배출되어, 쌍호공소에 새로운 활동에너지들은 제공하고 있다.

쌍호공소는 마을내 혼인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가령, 함

안 조씨는 안동 권씨, 영양 김씨, 경주 허씨, 밀양 박씨와 직접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 또 영양 김씨 김정상은 김해 김씨, 풍기 진씨와 혼인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마을 전체가 인척관계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공소는 신앙공동체, 경제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혈연관계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교우촌을 신앙공동체 중심으로만 이해되어 왔던 기존의 견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쌍호공소는 시대의 정신을 올바로 파악하고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그 시대에 부응하는 가톨릭정신을 실천해 갔다. 쌍호공소는 일제에 저항해서 신앙을 지켰다.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화되어 민족 내부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때에도 이 혼란을 꿋꿋하게 견뎌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농민운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생명공동체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새로운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 쌍호마을에 모여들었다.

또한 쌍호공소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는 출향한 가계에서도 수도자와 성직자가 다수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쌍호를 자신들의 신앙요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이 마을에 살았던 경험들이 언제나 신앙의 못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쌍호공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과 환경운동에 종사는 사람들은 신자든 비신자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심화시키거나 새롭게 배우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쌍호 공소, 뮈텔 주교, 드망즈 주교, 공소회장, 함안 조씨, 밀양 박씨, 교우촌, 신앙가계

1. 여는 글

'한국 천주교는 선교사가 없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의 교회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표현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는 한국교회사의 전개과정에서 신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천주교회 초기 박해시대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공소는 신자들의 생활과 그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던 공간이었다.[1] 이 공소에서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

---

1) 천주교 교우촌이나 공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업적들은 다음과 같다.
김승주, 「韓國教會指導書들을 통하여 본 公所會長의 位置와 役割」, 大建神學大, 석사논문, 1979.
김옥희, 『박해시대 교우촌』, 계성출판사, 1983.
농촌공소실태조사 연구위원회, 『천주교 농촌공소(公所) 실태보고서』, 분도출판사, 1984.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대구본부, 『産地旅情』, 1996.
구본식 · 마백락, 『옛 공소의 어제와 오늘』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0.
劉仁實, 「19세기 언양 천주교 교우촌 사례분석」『釜大史學』25 · 26 합집, 2002, pp.23~60
하성래, 「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그 주변 교우촌들」『教會史研究』23, 2004, pp.165~208
방성근, 「수리산 공소와 최양업 신부」『한국사회와 천주교』 2007, pp.109~129
_____,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教會史研究』31, 2008, pp.27~46
金貞淑, 「尙州 물미 教友村 會長의 인적맥락과 그 영향 -1899 ~ 2007-」『한국사회와 천주교』, 2007, pp.245~299
김정환, 「지방리공소」위의 책, pp.211~244
윤선자, 「일제 강점하 천주교 회장의 현황과 교육」, 위의 책, pp.369~397.
김혜숙, 「19世紀 '甕器 教友村'의 信仰生活과 甕器紋様」『教會史研究』30, 2008, pp.75~104.
이창언, 「옹기교우촌의 분포와 특성」-경상북도 칠곡지역을 중심으로-」『民族文化論叢』42, 2009. pp.91~124.
그 외 식민지시대의 『경향잡지』는 공소활동을, 현재에는 교우촌 마을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다.

은 삶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공소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안동교구에는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공소가 여럿 있다. 그중 두 공소는 전혀 성격이 판이하여 대조가 되면서도 교구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는 물미(퇴강) 공소로서 한때 본당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공소로 편제되기도 했던 곳이다.[2] 또 하나는 쌍호공소인데, 그 소속이 여러 본당으로 바뀌면서도 물미공소와 짝을 이루며 현실을 헤쳐 나가고 있다.[3] 물미공소는 지난 100여년간 사제 14명 수도자 16명을 배출했고 또 현재도 신학생들이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쌍호공소에서는 주교 1명, 사제 14명(수사신부 포함), 수녀 11명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는 교우촌내 신앙생활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공소 구성원들의 강한 연대의식은 널리 알려져 왔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의 서슬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냈다. 체포되었을 때는 온 마을이 굴비처럼 엮여나갔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는 속에서 일체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소는 다양한 성씨(姓氏)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매개로 하여 형성시킨 마을인 교우촌을 말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각성바지들이 함께 살아온 교우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이들이 서로 협조하며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런데 공소의 신자들은 마을 전체가 일치감을 이루는 생활 속에서 백여 년을 함께 살아왔다 하여도, 그

---

2) 물미공소는 2003년 다시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공식명칭은 '천주교 안동교구 사벌·퇴강교회'이다.

3) 필자는 이 두 공소를 거의 동시에 조사하기 시작했으나 2007년 물미공소에 대해 먼저 발표했다. (김정숙, 2007. 위의 논문 참조). 또한 쌍호공소에 대해서는 부산교회사연구소 63회 학술연구발표회(2009년 6월 14일)에서 「쌍호공소와 공소회장의 역할」로 발표했으나 당시 한건 신부의 토론을 바탕으로 쌍호공소의 성립과 인적구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본 원고를 작성했음을 밝힌다. 발표문과 토론문은 「부산교회사보」 Newletter 64, 2009. 10.21. pp. 56~71

들 상호간에는 일정한 역학관계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공소 내지 교우촌은 그침 없이 변해가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 공소를 너무나 단선적 혹은 정태적인 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공소의 다양한 동태적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즉 특정 교우촌에서 확인되는 한가지의 사례가 교우촌 일반을 해석하는데 적용되곤 했다. 그러나 교우촌은 박해시대 형성 당시의 모습으로 지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 가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쌍호공소를 통하여 공소가 가지고 있는 동태적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는 쌍호공소의 역사를 추적하여 교우촌의 형성 및 변화에서 드러나는 내부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쌍호공소 신자들의 가계들을 분석하여 교우촌 구성원의 관계 및 각 가계간의 역동적 상호 관계와 협조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교우촌을 주도하는 집안을 찾아보며, 타성(他姓)간의 협조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 회장의 역할과 인맥형성 및 그 영향력 등을 검토하려 한다.

한편, 쌍호공소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공소 자체가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해 온 대표적인 공소이다.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좌우 대립, 그리고 1970년대에는 가톨릭 농민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이것이 90년대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이어, 쌍호공소는 이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4)]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공소 그 자체나 공소 구성원들이 간직하고 있는 구전자료들은 한국교회사 자료 중 가장 생동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자료를 통해서 질문들을 해결해 가고자 한

4) 쌍호공소의 최근 활동은 여러 매체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쌍호공소의 사회활동은 후고로 작성하고자 한다. (http://wonsoon.com/tag/2642 ; http://www.djhistory.org/technote6/board.php?board=djhistory&page=2&command=body&no=42)

다.[5] 이 연구가 한국교회사에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한국가톨릭 신앙의 요람이라고 여겨지는 교우촌 내부의 역동적 현상들을 파악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소의 미래에 대한 대안 모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쌍호공소 성립과 변천

쌍호공소는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51번지에 있다. 이 공소는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곳은 낙동강 끝자락에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은 다리도 놓이고, 길도 잘 닦여서 자동차로 공소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나 1960년까지만 해도 쌍호공소 사람들은 겨울에는 얼음 위를 걸어서 다녔던 추억을 가지고 있다.[6] 양필분 수녀는 공소를 가기 위해 배삯을 내던 때를 기억한다.[7] 특히 이 마을을 떠난지 오래 된 사람일수록 쌍호의 옛날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

행정상으로도 이곳은 안동, 예천, 의성 3개군의 경제지역이어서

---

5) 본고는 뮈텔 주교일기, 드망즈 주교일기, 로베르 신부 편지 및 천주교 안계성당 쌍호공소에서 2003년에 발간한『쌍호공소 200년, 신앙의 뿌리』(이하『신앙의 뿌리』로 칭함)를 주요 자료로 활용했다. 이 책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료나 생활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보완했다. 필자는 2007년 7월 28일 쌍호공소를 처음 방문하기 시작하여 9월 23일, 10월 27일, 2009년 5월 18일, 7월 25일 등 계속적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신자들을 인터뷰했다. 농번기로 한창 바쁠 때에 필자의 질문에 정성들여 응답해 준 우영식, 김정상, 허춘학, 김동길 회장님들과 유옥분, 최아녀, 김귀옥, 이경희, 정순이, 반향숙, 권옥이, 전미자 여사 및 그밖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쌍호공소를 소개하고 첫 방문에 동행해 주신 권오은 회장께도 감사드린다. 인터뷰 과정에서 얻은 많은 자료는 계속 보완하며 후고로 정리할 것을 약속한다.

6) 김종혁,「나의 회상」『신앙의 뿌리』p.163.

7) 양필분, 2003,「나의 신앙, 나의 고향」『신앙의 뿌리』p.188

행정의 사각지대로 관청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했던 곳이다. 각 군들의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 쌍호는 생활영역상의 경계가 모호하다. 쌍호는 행정구역으로는 의성군에 속하지만 의성군의 끝자락이므로 1960년대까지는 의성 쪽으로 버스노선이 없었다.[8]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들은 의성읍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몰랐다. 낙동강을 건너면 안동이나 예천으로 버스가 하루에 몇 번씩 다녔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도 예천이나 안동으로 갔고, 성당 역시 예천본당 소속으로 되었다. 시장도 강을 건너 구담이나 신풍으로 갔다.[9]

이러한 쌍호공소를 논할 때에는 그 이름의 유래부터 밝혀야 한다. 오래된 자료나 대물림 신앙을 지키는 신자(舊敎友)들의 머리에는 쌍호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쌍호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때는 1914년부터라고 한다.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도호동, 청호동, 부수동을 병합하여 쌍호동으로 개칭하고 의성군 신평면에 편입했다.[10]

이곳은 원래 '청호'라고 불리면서 용궁군 산하면 관할에 속했다. 그런데 청호 또는 청오라는 명칭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90년대의 기록이다. 뮈텔주교(Mutel, Gustave Charles Marie, 閔德孝 ; 1854-1933)는 1893년 11월 24일자 사목방문 지역을 기록하면서 이곳을 '쳥올'이라고 한글로 적었다.[11] 그리고 옆에 그려 놓은 그림

---

8) 1960년대 말부터 하루에 한번 의성쪽으로 가는 버스가 생겼다.(2009년 10월 8일 조광래의 증언)

9) 앙필분, 「나의 신앙, 나의 고향」『신앙의 뿌리』 p.186, 결국 이 같은 자연환경이 쌍호의 소속본당이 여러번 바뀌게 된 이유일 것이다.

1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7권, 1978, p.346 ; 『신앙의 뿌리』, p.69. 그러나 현재 이곳의 정식명칭은 '쌍호리'이다.

11) 「Puis nous retournons à 10 lys du fleuve où se trouve la poterie de 쳥올 du district de 龍宮」『Journal de Mgr. Mutel』 1893년 11월 24일자와 삽입된 그림 참조.

에서는 '청올이'라고 써 놓았다. 이는 당시 주민들이 청우리(淸宇里)로 불렀던 이름을 들은대로 적은 것이라 하겠다.

한편, 같은 사료의 '쳥올'의 위치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는 뮈텔주교의 1893년 11월 24일자 일기는 한글로 '쳥올'로 표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표기했으나, 뮈텔주교의 1903년 10월 20일자 일기를 번역할 때에는 이를 '청운(靑雲)'으로 읽어 醴泉 豊壤面 靑雲里로 비정했다.[12] 그런데 뮈텔주교 일기 원문은 「...et nous passons le fleuve le P. Joyau et moi pour gagner Tchyeng-ol Ryong-Koung」[13]로 되어 "Tchyeng-ol"이라고 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에 한글로 '쳥올'이라고 적은 주교의 표현과 그림에 있는 '쳥올이'를 종합해 볼 때, 이는 청오리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지역이 용궁(Ryong-Koung)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오리(청호, 즉 현재의 쌍호)라 하겠다.

또 뮈텔주교가 그려 놓은 장소표시를 보면 도경에서 강건너 맞은 편에 '쳥올이'라고 한글로 써 놓았다.[14] 이 그림에는 강건너 맞은편에 도경이 있으므로 이는 현재의 쌍호리(청호리)가 맞다고 생각된다,[15]

더우기 뮈텔주교는 1903년 10월 20일자 일기에 사목방문 노정을 적어 놓았다. 이 거리를 계산하여 청호리의 위치를 볼 수가 있다.

---

12)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주교일기』III, 1993, p.292, 주102, '醴泉'의 한자표기를 바로 잡는다.

13) 『Journal de Mgr. Mutel』 1903년 10월 20일자

14) 『Journal de Mgr. Mutel』 1893년 11월 24일자 사목노정 그림

15) 『신앙의 뿌리』에서는 설명 없이 이 날자 일기를 청호리 자료로 택하고 있다.(p.82) ; 한편 「Joyau 신부 보고서」에서는 정호리로 번역되어 있는데(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가실본당 초창기 주임신부들의 서한집』 1995, p.205) 『신앙의 뿌리』(p.82) 편자들의 해석을 따라 이를 청호리로 취한다.

A 10 lys nous faisons halte au village de Ham-tchyang Tjya-tong. C'est là que le P. Alexis a eu une affaire l'an dernier avec les prétoriens de la ville. Encore 20 lys et nous sommes au village de Moul-mi du district de Syang-tjyou où nous dînons. Le P. Alexis y reste pour donner les saccraments, et nous passons le fleuve le P. Joyau et moi pour gagner Tchyeng-ol Ryong-Koung. 6 chasseurs font parler la poudre tout le long de la route. 70 lys en tout et nous arrivons ver 4h.[16].

2이날 주교는 70리 사목여행을 했다. 그런데 함창에서 60리, 물미에서 약 40리쯤 되는 곳은 현재의 쌍호공소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게다가 뮈텔주교는 '이곳을 1892년에 방문했던 곳이고 회장이 윤안드레아'라는 설명을 덧붙여 두었다.[17] 따라서 이는 쌍호공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주교는 1893년의 일을 1892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는 드망즈(Demange, Florian 安世華 ;1875~1938) 주교의 일기를 번역 출판할 때도 이 '청호리'를 '예천 풍양면 청운리'에 비정했다.[18] 그런데 이 원문에는 'Tchyenghori'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19] 이를 청운리로 비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청운리는 청호(쌍호) 공소로부터 약 50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다.

청호리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쓰였던 것 같다. 1911

16) 『Journal de Mgr. Mutel』 1903년 10월 20일자

17) 「C'est une chretiénté que j'ai visitée en 1892. Autrefois poterie village de cultivateurs aujourd'hui. 」『Journal de Mgr. Mutel』 1903년 10월 20일자

18)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드망즈 주교일기』 1915년 11월 12일자, 1987, p. 155 와 같은 일기 1926년 11월 28일자에는 주없이 '청운리'로 해석하고 있다,(p.568),

19) 「Nous sommes arrivés à Tchyenghori à 2h. pour commencer le travail à 3h 1/2(『Journal de Mgr. Demange』 1915년 11월 12일 ; 「30 lys dine à l'auberge, arrivée à Tchyenghori.」(앞의 일기, 1926년 11월 27일」. 본 일기 29일자도 「Administration de Tchyunghori.」라고 기록하고 있다.

년부터 대구대목구의 주교를 맡은 드망즈 주교의 일기에서는 1926년에도 이 지역을 계속 청호로 부르고 있다.[20] 즉 쌍호라는 명칭은 행정상의 이름일 뿐, 공소에서는 계속해서 청호로 불렀던 것 같다. 청호공소가 쌍호공소라는 명칭으로 고쳐서 불리게 된 때는 확실치 않다. 다만, 1934년 교세통계표에 쌍호공소라는 명칭이 보인다.[21]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호와 쌍호가 섞여 쓰이고 있었던 것 같다.

이곳의 주민 분포를 살펴보자면, 쌍호리는 쌍호1리, 2리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쌍호1리만이 교우촌이다. 즉 쌍호1리는 신자들의 공간이다. 이곳은 '점마'(점말의 방언)로도 불렸으며, 옹기가마가 있던 교우촌이었다.[22] 2007년도의 첫 현장 답사 시에는 공소 초입에 있던 집이 한창 새로 건축되고 있었다. 그곳이 옹기굽던 자리라고 했다. 물론 쌍호2리에도 신자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교우촌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쌍호2리의 신자들은 외교인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다.

쌍호1리 교우촌에는 현재 17가구가 있는데 주민은 약 30명쯤 된다.[23] 그 중에서 한가구는 불교신자이고, 한가구는 예비신자이며, 한 가구에는 베트남인이 결혼 이주해 왔다고 한다. 마을의 인구가 가장 많은 때는 약 140명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는 이곳도 역시 여성이 많다. 이 지역에서는 94세가 된 '옥인할매'가 최고령자이다. 한편, 쌍호2리는 주민이 약 90여명이 된다. 쌍호2리 한가운데는 개

---

20) 위의 주 19 참조

21) 천주교예천성당, 『예천본당 60년사』, 1995, p.102 ; 천주교 안계성당 쌍호공소, 『신앙의 뿌리』 p.93

22) 조종율, 2003, 「쌍호 공소 회고」『신앙의 뿌리』 p.137. 뮈텔주교도 이곳을 옹기마을이라고 소개했다. (『Journal de Mgr. Mutel』 1893년 11월 24일자)

23) 필자는 17가구라는 말을 듣고 주민이 대략 5~60명은 되느냐고 물었더니 조종익 씨는 1인가구가 많으므로 주민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다.

신교회가 자리잡고 있다. 그곳에서 성당을 찾는다고 하면 위쪽 마을을 가르쳐 준다.[24]

이러한 쌍호마을에는 신유박해 이후부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쌍호공소, 즉 청호리 공소에 첫 공소회장이 임명된 때는 1891년이라고 추정된다.[25] 이는 쌍호에 가톨릭 신앙이 유지되어 왔지만 제도적으로 공소가 성립된 때는 1891년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곳 신자들은 쌍호가 2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설명하며, 또 그렇게 믿고 있다.

물론 마을이 있다고 금방 공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는 'station'(교회의 말단 행정단위) 'oratoire 또는 chapelle'(신앙집회가 열리는 건물), 'chrétienté'(신앙집회를 열 수 있는 교우촌)[26], 'mission'(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공성사) 등 여러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이다. 이와 같은 여러 의미가 공통되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공소란 결국 교회의 공식적인 제도의 일부라는 사항이다. 따라서 마을의 역사와 공소의 역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쌍호공소의 전개과정은 공소가 설립된 1891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공소 설립 이전에 이곳에서 형성되었을 신앙공동체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뮈텔주교의 일기에 공소가 된 집은 1866년 이전에 지은 집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27] 따라서

---

24) 마을 상황은 약 30년간 이장직을 맡아왔던 조종익 씨가 설명했다(2009년 5월 18일), 조종익씨는 약 10년간 쌍호1리 이장을 지냈고, 후에 다시 쌍호2리 이장을 지냈다. 부인 유옥희 여사와 그 친구 김숙자 여사도 함께 마을 현황을 알려주었다.

25) 『Journal de Mgr. Mutel』 1893년 11월 24일자 ; 『신앙의 뿌리』 p.77

26) 일반적으로 천주교 선교사들은 공소(Kong-so)라는 우리말을 번역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뮈텔주교의 1903년 10월 20일자에는 chretiénté라고 쓰고 있다. 본고 주 17 참조

27) 「Kong-so très large bati par le catéchiste Youn André ancien chrétien d'avant 1866.」『Journal de Mgr. Mutel』 1903년 10월 20일자

이 지역 신자들은 공소가 성립되기 전에는 주변의 다른 곳에 가서 성사를 보며 살았으리라고 판단될 뿐이다.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어 가던 1882년 말부터 선교사들은 경상도 지방과 충청도 일부, 전라도 일부 지방을 순회하며 전교했다. 이 지역을 순회하며 전교했던 선교사로는 로베르(Robert, Achille Paul, 金保錄 ; 1863~1922) 신부가 있다. 그는 1885년 낙동강 건너편 이웃 마을인 예천군 지보면 도경 공소에서 판공성사를 주었다. 아마 이때 청호의 신자들도 도경 공소로 가서 판공성사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28]

그런데, 실제로 조선 교회에서 공소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한 1830년대였다.[29] 그러나 쌍호가 신자들의 마을이었으면서도 다른 지역보다 늦게 공소로 지정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쌍호에 공소가 처음 설치된 시기에 대해서는 뮈텔 주교의 일기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다. 그의 1893년 11월 24일자 일기는 아래와 같이 끝맺고 있다.

> 그 산맥의 끝, 평야의 한복판에 예천 대국산이 솟아 있다. 우리는 그 산을 왼쪽으로 하고 산맥의 아랫부분을 빙 돌아 낙동강가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우리는 강을 끼고 10리를 더 돌아가니, 용군군의 청올옹기마을이다. 이 옹기 마을은 불과 2년전에 시작된 곳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30]

---

28) Robert 신부의 1885~1886년 교세통계표에 영궁면 도경에 대한 보고가 있다.(『김보록(로베르』 신부 서한집,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편, 1995, pp.42-42); 『신앙의 뿌리』, p.77

29) 조현범, 「모방신부의 조선전교」,『교회사연구』22, 2004, p.17 ; 차기진, 「모방신부와 기해박해」,『사목』233, 1998, p.95

30) 「Au bout de la chaine une montagne 예천 대국산 se dresse au milieu de la plaine. nous la laissons à gauche pour contourner le bas de la chaîne et arriver au bord du Nak-tong. Puis nous retournons à 10 lys du fleuve où se trouve la poterie de 청올 du district de 龍宮. Nous arrivons à la tombée

1893년 무렵 청호리에는 약 12가구, 신자 50여명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뮈텔주교는 위의 일기에서 쌍호공소의 이전 명칭에 해당되는 '쳥올(청오리, 淸宇里)'를 옹기마을(poterie)이라고 하면서 2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 말로는 마을이 2년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인지, 공소가 2년전에 시작되었다는 의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뮈텔주교의 11월 27일자 일기에 의해 이년 전 이 무렵이 마을에 공소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31] 그는 "로베르 신부는 회장으로 56세의 윤 안드레아를 임명한다. 그 책임을 맡았던 교우들이 작년에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32] 라고 했다.

1893년 뮈텔주교를 모시고 온 로베르 신부는 앞서 공소를 순회하던 중 1891년에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성사를 집전했다. 그때 쌍호에 공소회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주교를 모시고 다시 이 마을에 왔는데, 이때 그가 2년전에 한 일이 주교일기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즉 쌍호공소는 1891년에 시작되었다.[33]

한편, 로베르 신부에 의해 '전에 책임을 맡았던' 초대 회장은 밀양박씨 박경태(상중; 1854~ 1903)였다. 그들은 그 이듬해 공소회장인 박경태가 김천 마잠 신자촌으로 이사함에 따라 쌍호공소의 회장은 공석이 되었다.[34]

---

de la nuit, 12 maisons de chrétien. La poterie date de deux ans seulement et pariat devoir s'accroitre.」(『Journal de Mgr. Mutel』1893년 11월 24일자.)

31) 원문 해석상 작년에 회장을 임명했는데 그가 떠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로베르 신부의 1892년 사목기록에 청호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1891년 일이었다고 해석한다.

32) 「Le P. Robert nomme comme catéchiste Youn André 56 ans, ceux qui étaient en charge l'an dernier sont partis ailleurs.」(『Journal de Mgr. Mutel』 1893년 11월 27일자)

33) 『신앙의 뿌리』 p.77, 로베르 신부의 교세통계표에는 청호리가 보이지 않으나 일단 『신앙의 뿌리』편자의 의견을 취한다.

34) 7대조인 박수광(1770~1837) 때 이 마을에 들어왔으나, 박근하 회장 때까지는 마을을 나가살다 들어오기를 반복했다.(『신앙의 뿌리』 p.75 참조)

이듬해인 1893년 조선교구 교구장 뮈텔 주교는 경상도 지역의 첫 번째 사목방문 시에 청호리 공소에서 성사를 주었다. 뮈텔 주교를 동행한 로베르 신부는 윤복만(효주; 1838~1918) 안드레아를 공소 회장으로 임명했다. 당시까지는 옹기장이었던 윤복만은 이곳에다 집을 한 채 짓고 전답도 마련하여 농사꾼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었다.[35]

그후 청호공소에는 신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10년 사이 신자수가 130명이 되었다. 청호리 공소의 교세 통계표에 의하면 1893년 18명이던 공소 신자가 이듬해인 1894년 68명, 1895년에는 69명, 1896년 80명, 1897년 79명, 1898년 90명, 1899년 89명, 1900년에는 95명으로 7년 사이에 50여명의 신자가 늘었다. 또한 1902년에는 97명, 1903년에는 130명으로 10년 사이에 신자수가 두 배로 늘었다.[36] 1903년 조아요(Joyau, Louis Alphonse Marie, 玉裕雅, 1877-1907) 신부는 사목보고서에 그해 이곳에서 33명의 성인 영세자를 배출했다고 했다.[37]

뮈텔 주교는 경상도 지방을 두 번째로 순회 전교하던 때(1903. 10.16~12.15), 청호 공소에 다시 왔다. 뮈텔 주교는 10월 20일부터 당시 본당인 가실(낙산) 성당 조아요 신부와 함께 청호리 공소에 머물며 고해성사 89명, 견진성사 51명을 주었다.[38] 당시에도 공소 회장은 윤복만이었다.

1911년 대구교구가 설치된 이후, 드망즈 주교의 청호 공소 방문은 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드망즈 주교는 교구장에 취임한

---

35) 「Ce Youn a bati ici une maison très confortable et acheté q.q. champs et irzières avec l'intention sans doute de quitter peu à peu le métier potier pour redevenir agriculteur.(『Journal de Mgr. Mutel』 1893년 11월 27일자

36) 『신앙의 뿌리』 pp.81~82

37) Joyau 신부 보고서, 『가실본당 초창기 주임신부들의 서한집』 p.205

38) 『뮈텔 주교 일기』III, 1903 10월 22일자, p.293 및 정동근의 증언(『신앙의 뿌리』 p.90)

뒤, 191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에 대한 사목 방문을 수행했다. 이때 그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곳 청호 공소에 머물며 고해성사 및 견진성사를 집전했다.[39] 당시 주교가 2박 3일간 공소에 머문 것으로 보아서 청호리 공소 신자뿐 아니라 근방의 많은 신자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보고 견진성사를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40] 이때 공소회장은 박근하 요한이었다.

당시 쌍호공소에서 신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물론 개항기 이후 서양문물에의 탐구로 천주교 신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신자들은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을 이용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자들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박해가 끝나가자 빼앗긴 재산을 당국과 교섭하여 다시 찾고자 했으며, 선교사들이 이에 나섰다. 이에 서민층의 많은 외교인들이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던 것이다.[41]

또한 청호리(쌍호)에는 개항기 이전부터 옹기가마가 있었고 옹기제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 옹기점의 노동력은 외지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다. 그밖에도 낙동강의 수운을 이용하는 교통상의 편의때문에 여러 곳에서 많은 신자가정이 이사를 왔다. 물론 양반마을 근처에 사는 서민들도 쌍호로 들어왔다.

개항기 신자수의 증가 요인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 외에 교회의 선교활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던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1895년 가실 성당이 설립되었다. 가실본당의

---

39) 「Comme hier la confirmation a eu lieu dans la cour, le plafond de la chambre étant trop bas pour la mitre- Tout était couvert de givre, le ciel très pur.」『Journal de Mgr. Demange』 1915년 11월 14일

40) 『신앙의 뿌리』 p.90

41) 이때 사회에서 천주교 신자와 주민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敎案事件이라 한다. Joyau 신부 보고서, 『가실본당 초창기 주임신부들의 서한집』pp. 212~215 및 『신앙의 뿌리』 pp.84~86 교안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신부는 매년 봄, 가을에 쌍호공소를 비롯한 각 공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성사를 거행하므로 새로운 예비자들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냉담했던 신자들도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시작된 쌍호공소의 역사에도 그 변화가 적지 않았다. 정부 행정구역의 경계지점에 있던 쌍호는 그 관할 지방관서가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을 겪었다. 우선, 조선교회의 교구가 분할되던 과정에서 쌍호공소가 소속되어 있던 교구가 바뀌어 갔다. 즉, 원래 조선 교구 지역이었던 이곳은 1911년 이후 대구감목구 소속 공소가 되었다. 그리고 1969년에 대구대교구에서 안동교구가 분리됨에 따라 다인성당에 소속되어 있던 쌍호공소도 안동교구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쌍호공소는 처음 가실성당(현재의 낙산성당)을 시작으로 물미, 예천, 다인성당을 거쳐 안계성당에 소속되었다. 설립 초기에 가실(낙산)성당에 소속되어 있던 쌍호공소는 1922년 퇴강(물미) 성당이 설립되자 이에 속하게 되었다.[42] 1926년 드망즈 주교의 3차 공소 방문 때, 주교는 11월 27일에 청호리(쌍호) 공소에 도착하여 2박 3일간 머물면서 성사집전을 하고 풍산으로 떠났다.[43] 당시 공소회장은 조연복 루도비꼬였고 공소 신자수는 120여명으로 추정된다.[44]

그러나 쌍호공소는 이후로 다시 예천성당 소속으로 옮기게 되었다. 1927년에 안동에 성당이 설립되자 쌍호는 또 안동성당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1932년 예천성당이 설립되면서 쌍호공소는 예천성당으로 이속되었다. 당시 쌍호공소는 신자가 131명으로서,[45] 예천

---

42) 1922년 9월 24일 그 전날 서품된 이종필 신부를 본당신부로 임명함으로써 본당으로 승격하였다. 또 1922년 물미도 신자수가 약 120명으로 쌍호공소와 비슷한 규모였다. 그런데도 물미는 본당이 되고 쌍호는 공소로서 이에 소속되었다.

43) 『Journal de Mgr. Demange』 1926년 11월 27일~29일

44) 『신앙의 뿌리』 p.92

45) 1934년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예천읍내 (28세대 114명), 지보면 도장공소

성당 산하의 공소 가운데 매우 큰 공소로 평가되었다. 1935년부터는 조재봉 베드로가 공소회장직을 새로 맡아서 봉사했다.

해방이 되고서도 쌍호의 소속변경은 계속되었다. 사실 구술증언을 해준 사람들의 기억은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선, 대구교구에서는 1961년 다인보다 교통이 더 편리하고 더 중심지인 안계에 성당을 설립하고 초대 본당신부로 퇴강출신 사제 김규태 디모데오 신부를 임명했다[46]. 그러나 김규태 신부가 사제관이 없는 안계성당으로 가지 않고, 다인공소의 1층 창고를 수리하여 임시 사제관을 꾸미고 다인에 주거했다. 이렇게 하여 결국 다인공소가 성당으로 승격되었다.[47]

이러한 변화때문에 쌍호공소의 주민들 간에는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에 따라 소속 본당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다. 또한 공소의 관할 본당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영세대장이나 공소의 역사 사료 등 관계서류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동교구 설정은 쌍호공소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 1969년 5월 29일 바티칸에서는 안동교구를 설정하고 초대 교구장에 파리외방전교회 회원인 두봉(Dupont, René, 杜奉 ; 1929~) 신부를 임명했다.[48] 두봉주교는 1971년, 사제관이 마련되지 않아서

(16세대 84명), 의성군 신평면 검곡공소(6세대 25명), 용궁군 대은리 구읍공소(8세대 35명), 의성군 신평면 쌍호(청호리)공소 (23세대 131명), 의성읍내 공소(2세대 10명), 의성군 단북면 이연공소(10세대 29명), 영풍군 장수 공소(1세대 12명), 영주군 풍기면 풍기공소(7세대 11명)으로 총 101세대 461명의 신자가 있었다.(『예천본당 60년사』, 『신앙의 뿌리』 1995, p.93)

46) 『신앙의 뿌리』 p.100

47) 다인본당은 이후 성당과 사제관을 짓고, 1963년 서정길(徐正吉 ; 1911 ~ 1987)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하였다.(『신앙의 뿌리』 p.100)

48) 두봉 주교의 관할 구역은 기존의 안동감목대리구 구역인 안동, 예천, 봉화, 영양, 영주 지방과 왜관 감목 대리구의 상주, 문경지방과 대구 대교구 관할인 의성군위, 의성 다인 성당과 춘천교구 관할지역인 울진군이었다.새 안동 교구의 관할 본당은 안동본당, 영주본당, 봉화본당, 울진 본당, 영양 본당, 영덕 본당, 청송 본당, 예천 본당, 의성본당, 다인본당, 서문동

본당 승격이 좌절되었던 안계공소를 본당으로 설정하고 안덕화 베드로 신부를 본당신부로 발령했다.[49] 그리하여 쌍호공소는 이제 안계본당 관할이 되었다. 현재 안계본당에서는 매월 2회 신부가 쌍호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드린다.

그렇지만, 쌍호공소 신자들은 다인 본당 시절을 가장 많이 기억한다. 다인본당 시절에는 주일에 공소예절로 하고 한달에 한번 신부가 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했다. 당시 쌍호공소 신자들 가운데 성직자나 수도자를 지망하기 위해서는 매주 본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당시 쌍호공소의 일반신자들은 일요일이면 공소에 나와서 공소예절에 참여했지만, 본당의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싶은 신자들은 아침 일찍 새벽밥을 먹고, 산길로 25리를 걸어서 다인 본당의 주일 미사에 참례했다.[50]

예천본당으로 미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부활대축일에는 공소 신자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아침 일찍이 새벽밥을 먹고 배로 낙동강을 건너 70리 길을 걸어 예천 본당에 가서 대축일 미사에 참례했다. 그리고 부활대축일의 다음 주일인 사백주일에는 첨례 후에 공소에서 잔치를 벌이고 풍물놀이도 했다. 또 매년 성탄대축일 때는 공소에서 첨례를 본 다음, 저녁에는 공소에서 성탄 연극을 공연했다. 그러면 신자들뿐 아니라 지방의 외교인들도 구경하러 왔다. 연극 후에는 주민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다. 한편, 매년 사순절에는 매일 저녁에 신자들이 공소에서 성로신공(십자가의 길)을 바쳤다.[51]

본당, 남성동 본당, 함창본당, 화령 본당, 문경 본당, 가은 본당, 주평 본당, 점촌본당 등 18개 본당 및 175개 공소, 그리고 사제가 주재하지 않는 퇴강본당이 있었다. 총 신자수는 27,742명, 성직자수는 주교 1명 사제 19명(한국인 사제 2명), 학교 2개, 병원 1개, 나환자 정착촌 8개가 있었다. (『신앙의 뿌리』 p.107)

49) 『신앙의 뿌리』 p.107

50) 조상래 신부, 「그리운 고향, 신앙의 유산지 쌍호」『신앙의 뿌리』 p.143

51) 우영식의 증언, 『신앙의 뿌리』 p.127, 증언내용 중에 성당까지의 거리를

한편, 공소의 역사에서는 공소의 상징인 공소집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쌍호의 공소집은 현재 공소터에 있었다. 즉 이 공소집은 1891년 공소 설립 당시부터[52] 신자들이 모여 첨례를 드렸던 곳이었다. 첫 번째 공소는 초가집이었는데, 1891년 당시 공소집 주인은 박만득 야고보(1850~1920)였다.[53] 이 공소건물은 1866년 병인박해 전에 윤복만이 지은 건물이었다.[54] 그러다가 윤복만이 새 집을 지어 이사감으로써 박만득 형제가 이를 소유하게 된 것 같다. 이들은 밀양박씨 박병조 마태오의 入鄕 1대조들이었다.

당시 공소집은 위채, 아래채가 있었다. 위채는 4칸짜리 집으로 제대실과 남, 여 교우들 방이 각각 있었고, 그리고 아래채에는 복사 가정이 사용하는 복사 살림집과 안방 그리고 부엌과 땔나무를 넣어둔 도장광이 있었다. 그때 공소집에는 정동근 도마 가정이 살고 있었다.[55] 정동근 집안이 사용하던 웃채의 복사집은 2칸으로 안방과 살림방이 있었다. 주일날 공소 신자들이 많이 나오면 미닫이 문을 열어젖히고서 교우들이 여교우방과 남교우방뿐 아니라 복사 살림방과 안방도 비좁게 앉아서 주일 첨례를 보았다.

70리라고 하는데, 이는 예천본당까지의 거리인 것 같다.

52) 『신앙의 뿌리』에는 공소설치를 1890년(23쪽), 1891년(77쪽), 1893년(89쪽)으로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본고에서는 로베르 신부의 편지에 이곳에 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해를 기준으로 1891년으로 통일한다.

53) 「Le maître de Kong-so est Pak Jacques et son fils Paul agé de 35 ans.」(『Journal de Mgr. Mutel』 1893년 11월 27일자.) ; 이들은 박병조 마태오의 집안으로서 그의 증조부인 박만득 4형제 가정이 상주 중동에서 이곳으로 와서 살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복사로 하회마을과 안동등지로 전교를 다녔다.(『신앙의 뿌리』 p.75)

54) 주 25참조

55) 정희욱 신부와 정회완 신부의 부친인 정동근 도마의 증언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는 문중의 박해를 받아 고향을 떠나 신평면 월소로 와서 살다가 다시 이곳 청호리 점말로 이사 와서 공소집에 살았다. 정동근은 1912년 쌍호공소 집에서 출생했다.

부엌칸은 온전히 밥을 하기 위한 솥과 그릇이 놓여 있었다. 도장방에는 쌀과 보리 등 곡식이 있었고, 땔나무광에는 장작을 쌓아 놓았다. 그리고 아래채는 4칸으로 방앗간, 벼·보리·조 등을 넣을 수 있는 곡식창고, 외양간, 사랑방이 있었다. 식민지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소 신자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 옹기점은 옹기 기술자인 허원식 원선시오 집안에서 경영했고, 마을 사람들은 거의 이 옹기점에서 허드렛일을 했다. 옹기 행상은 박주학 가정에서 담당했다.[56]

그런데 이 공소는 1926년 무렵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초기 뮈텔주교나 드망즈 주교는 주교관을 쓰고 방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뮈텔 주교는 1903년 견진성사를 집전할 때 공소 건물의 천장이 너무 낮아서 주교관을 쓰고서 미사 집전을 할 수가 없어, 앉아서 견진성사를 주었다고 한다.[57] 또 드망스 주교는 1915년 당시 서리가 내린 마당에다 차일을 치고 제대를 차려 놓았으며, 주교는 그곳에서 교우들에게 견진성사를 주고 미사를 봉헌했다.[58] 그런데 1926년에는 주교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소가 중간에 고쳐졌던 것 같다.

한편, 1934년 쌍호는 신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소집이 비좁게 되었다. 이때는 예천본당에 속하고 있을 때였는데, 쌍호공소는 새 공소 건물을 건축했다.[59] 공소신자들은 공소짓기 운동을 펼쳤다. 당시 공소회장인 조연복(루수)가 앞장섰고 모든 공소신자들이 공사의 잡역을 담당했다. 공사 중에 홍수가 나 큰 피해를 입었으나

---

56) 정동근 증언, 『신앙의 뿌리』 pp.124~125

57) 『뮈텔 주교 일기』III, 1903 10월 22일자, p.293 및 정동근의 증언(『신앙의 뿌리』 p.90)

58) 「Comme hier la confirmation a eu lieu dans la cour, le plafond de la chambre étant trop bas pour la mitre- Tout était couvert de givre, le ciel très pur.」『Journal de Mgr. Demange』 1915년 11월 14일

59) 『신앙의 뿌리』 p.93

신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성모승천 축일에 신축성당에서 고해 영성체와 성체강복식까지 거행했다. 당시 『경향잡지』는 '육신곤란 중에 이같이 함은 실로 '욥' 성인을 닮은 '공소'라고 했다.[60]

그러나 쌍호공소의 현재의 건물과 사제관은 1970년대 와서 다시 지어졌다.[61] 공소 앞의 회관은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에서 1987년 건축했다. 이렇게 공소집을 변화시켜가면서 쌍호공소는 성장해 왔다.

3. 쌍호 교우촌의 신앙가계 구성

공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변화를 거듭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우촌 자체의 성격이 변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들도 달라진다. 이 점은 쌍호공소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쌍호공소가 유기체와 같이 변해 가는 모습은 쌍호공소 내의 신앙가계 분석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 신앙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쌍호공소의 내력을 밝혀주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자료로 활용했다.

쌍호공소에는 권씨, 김씨, 류씨, 박씨, 신씨, 이씨, 윤씨, 우씨, 조씨, 진씨, 최씨, 전씨, 허씨 등 13개의 성이 섞여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씨들도 그 본관을 살펴보면 다시 각 성씨 안에서도 몇 갈래로 나뉜다.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본관이 다르거나 계파가 다른 계통이 있다. 즉, 김씨는 김해 김씨, 함창 김씨, 영양 김씨, 안동 김씨 등이 있는데 그 중 함창 김씨는 또 김재혁 계와 김동화 계가 갈라져 있다. 그리고 박씨도 밀양 박씨지만 박병조 가계와

60) 『경향잡지』28권 1934. p.501

61) 공소건물은 전형적인 농촌공소의 성당형식이고, 맞은 편에 사제관이 있는데 현재 공소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공소건물 옆쪽으로 회관이 지어져 있다.

박창호 가계로 나뉜다. 신씨도 같은 평산 신씨지만 신춘원과 신기순의 두 가계로 나뉘어 있다.[62] 이씨도 경주 이씨와 성주 이씨가 있는데, 그 중 경주 이씨는 두 갈래로 이광우 가계와 이상화 가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씨도 함안 조씨로 본관은 같으나 조봉덕 가계와 조경래 가계로 나뉘고 있다.

따라서 본관이나 파를 독립적으로 인정하면 쌍호공소에는 최소한 서로 다른 22가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안동 권씨 권혁수 안토니오 가계, 김해 김씨 김동길 사베리오 가계, 함창 김씨 김재혁 베드로 가계, 함창 김씨 김동화 아타나시오 가계, 영양 김씨 김정상 마르띠노 가계, 안동 김씨 김동수 바오로 가계, 진주 류씨 류승대 바오로 신앙가계, 밀양 박씨 박병조 마태오 가계, 밀양 박씨 박창호 요셉 가계, 평산 신씨 신춘원 바오로 가계, 평산 신씨 신기순 프란치스코 가계, 경주 이씨 이광우 요셉 가계, 경주 이씨 이상회 아우구스티노 가계, 성주 이씨 이문현 요한 가계, 해평 윤씨[63] 윤상박 요한 가계, 단양우씨 우영식 가브리엘 가계, 정선 진씨 전재도 다미아노 가계, 함안 조씨 조봉덕 아오시딩 가계, 함안 조씨 조경래 가계, 풍기 진씨 진상국 시리노 가계, 경주 최씨 최재호 마르띠노 가계, 경주 허씨 허춘학 프란치스코 가계 등이 들고 나며 이어져 살아왔다.

이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집안은 17가계였다. 쌍호에서 매우 번성했던 가계로는 밀양 박씨 집안을 들 수 있다.

---

62) 『신앙의 뿌리』 p.154에는 평상신씨로 되어 있는데, 신대원 신부의 회상기를 참조하여 평산신씨로 바로 잡는다.(신대원, 「나의 공소여!, 나의 신앙이여!」『신앙의 뿌리』 p.160 참조). 주민들은 평산과 평상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평상은 평산의 오류로 판단된다.

63) 『신앙의 뿌리』 p.255에 하평 윤씨로 되어 있으나 이를 해평 윤씨로 바로 잡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고문서』 호적류』(2005)에 함평현 하평 윤씨가 나온다. 원래 하평이라 하였는데 구한말 성균관박사 송영순의 사랑채에 당시 군수 김성규가 [해동거사]라는 액자를 써붙인 후 해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쌍호마을로부터 他地로 전출해 갔고, 이들에 관한 자료는 증언이 아닌 기록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다. 쌍호마을의 밀양 박씨는 두 집안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박병조 집안은 대구로 나갔고, 박창호 집안은 상주로 나가 살고 있어 현재 주민들로서는 그들의 소식을 모른다고 한다. 함창김씨 김동화 집안은 모두 상주 쪽으로 이사하여 현재는 쌍호마을과 왕래가 없다. 평산 신씨 신기순, 신춘원 집안도 서울로 이사하였다. 그 외에도 쌍호마을을 떠나서 지금은 그 가계를 조사하기 어려운 집안도 몇몇 있었다.[64]

현재 쌍호마을에서는 17가계의 사람들이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들도 쌍호 마을에 들어온 入鄕 시기가 서로 다르다. 6대를 이어오는 집안부터 시작해서 부모대부터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다.

쌍호 마을에서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은 함안 조씨들이다. 함안 조씨도 두 갈래임은 이미 언급했다.[65] 그중에서 조봉덕 가계가 가장 숫자적으로 많고 영향력도 컸다. 이들은 조봉덕의 할아버지 조창대와 그의 부인 손무자가 이 마을에 정착한 이후로 6대를 이어오고 있다. 조경래 집안도 증조부 조준석 빌립보 때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조유진 모니카까지 6대에 이르고 있으나, 자녀수가 적어 숫자적으로는 조봉덕 집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쌍호마을에서 많은 가족을 자랑하며 사는 집안으로 영양김씨 김정상 집안도 있다. 이들은 김정상의 증조부인 김인식 때 들어와 6대를 이으며 번성하고 있다.

안동 권씨 권혁수 집안은 권영도와 박월이 루시아 때 들어와 현재 권용인 레오 등 5대에 이르고 있다.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가 이 집안 출신이다. 김해김씨 김동길 집안도 김마리아 때 들

64) 이밖에도 권혁시 신부, 양필분 수녀, 정희완 신부 등은 쌍호출신 사제와 수도자로 조사되고 있으나, 그 출신 가계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었다.

65) 본고에서 칭하는 가계의 대표자 이름은 『신앙의 뿌리』분류에 따른다.

어와 현재 김영한 마리아 등이 5대를 잇고 있다. 또한 경주이씨 이상희 집안도 그의 증조부 이규진 원선시오 때 이 마을에서 살기 시작하여 현재 자신의 아들 이동훈 요셉에 이르러 5대를 이르고 있다.

한편, 4대에 이르는 집안도 있다. 경주 허씨 허춘학 집안은 그의 조부모 허원식과 조성녀 마리아 때 입향했다. 이들은 현재 허경자 부부까지 4대를 이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양 우씨 우영식 집안이 있다. 이들은 우영식의 조부 우성칠 시몬과 안루시아 때 이곳에 들어와서 현재 우홍구 보니파시오 부부까지 4대를 내고 있다. 경주최씨 최재호 집안도 주목된다. 그의 부모 최상열 클라멘스와 이정부 젤트루다가 이사해 와서 현재 최여준 요한 등 4대에 이르고 있다. 해평 윤씨 윤상박 집안도 그의 조부 유종정 바오로 때 입향하여 현재 4대를 이루고 있으나 자녀들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함창 김씨 김재혁은 선대 김한강 바오로와 김태영 요사팟 형제가 들어와 살기 시작해서 3대를 이어 번성하고 있다. 이 집안에서는 김계매 사비나 수녀가 나왔다. 경주 이씨 이광우도 아버지 이용덕 때 들어와 현재 이상훈 대건안드레아 등 3대를 내고 있다. 성주 이씨 이문현도 이곳에 들어와 3대를 잇고 있다. 또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집안으로 풍기 진씨 진상국 시리노 집안이 있다. 이들은 진상국의 아버지 진일준 요셉과 부인 임귀순 마리아 대에 이곳에 입향했다. 그리고 정선 전씨 전재도도 그의 모친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와 2대에 걸쳐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대수로 시간을 따진다는 일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쌍호마을에서 거주한 대수로 그 가계가 쌍호에 자리잡게 된 시점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66]

---

66) 가계별로 쌍호마을에 정착해서 살아온 정확한 기간을 파악하는 일은 후

<표 1> 쌍호공소 각 신앙가계의 마을 내 거주기간

	6대	5대	4대	3대	2대
1	함안 조씨 조봉덕 집안	안동 권씨 권혁수 집안	경주 허씨 허춘학 집안	함창 김씨 김재혁 집안	정선 전씨 전재도 집안
2	함안 조씨 조경래 집안	김해 김씨 김동길 집안	단양 우씨 우영식 집안	경주 이씨 이광우 집안	
3	영양 김씨 김정상 집안	경주 이씨 이상희 집안	경주 최씨 최재호 집안	성주 이씨 이문현 집안	
4			하평 윤씨 윤상박 집안	풍기 진씨 진상국 집안	

위의 <표1>을 통해서 볼 때 교우촌 200년의 역사를 동일한 계통의 가계 구성원들이 이어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을에서 오랜 터전을 가지고 있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마을을 떠난 집안도 있다. 이들은 주로 자녀교육이나 직업을 찾아서 出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향한 집안의 대표적인 가계는 밀양 박씨이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랜 댓수를 자랑하고 있는 가계는 밀양 박씨 가계로서 자손이 가장 번성했다. 밀양 박씨는 박병조[67]와 박창호 가계가 있었다.[68] 이 가운데 박창호 가계는 10대조 때에 쌍호에 입향했고, 그 후손들도 매우 번성했다. 8대 박창호만 해도 박창환과 박창수 마르타 등 3남매가 있었고, 박창호는 6남매, 박창환은 8

고로 미룬다.

67) 『신앙의 뿌리』의 신앙가계에는 이름이 없는데, 같은 책 p.75에 의해 박병조로 명명한다.

68) 박창호 요셉의 가계표에는 1대부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근하 회장의 7대조인 박수광(1770~1837)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 천주교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중 박해를 받아 형제가 피난길에 올랐는데, 다른 형제는 전라도 무주로 가고 본인은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집안은 초기에는 쌍호마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정착했던 것 같다.(『신앙의 뿌리』 p.74 참조)

남매를 각각 두었다. 더욱이 박창환 집안의 8남매 중에서는 신부가 둘, 수녀가 한명 배출되었다. 박해식 리보리오 신부와 박비오 비오 신부, 박은희 야고보 수녀가 그들이다. 밀양 박씨 집안은 현재는 상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박병조 가계는 이 마을에 입향한 후 5대 정도 살다가 6대조 때에 이르러 그 생활의 근거지를 대구로 이전했다. 이 가계에서는 특이하게도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가계에서는 그 많은 자손들 중에 수도자나 성직자가 배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쌍호마을에서 가장 오랜 가계를 자랑하고 가장 많은 수의 자손을 배출했던 밀양 박씨들은 현재 이곳 쌍호에는 살고 있지 않다.

그밖에 함창김씨 김동화 집안도 후손의 숫자가 많았으나 5대쯤에 이르러서는 상주로 전출했다. 함창 김씨 김유황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쌍호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인 밀양 박씨 가계의 박창수 마르타와 결혼해서, 함창 김씨와 밀양 박씨 두 가계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부부는 6남매를 두었는데 끝의 두 쌍동이 자매는 수녀가 되었다. 또한 이들의 4촌 중에서도 김난주 글라리아 수녀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쌍호마을 사람들은 함창 김씨 가계가 외지로 전출한 후 신부 수녀를 배출했던 까닭에, 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한다.[69] 함창 김씨 가계와 밀양 박씨 두 집안이 같은 시기에 쌍호를 떠났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외에도 쌍호공소에서 잠깐씩 살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교우촌에 살아보려고 왔다가 정착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이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이들로는 안동김씨 김동수 바오로 가계가 있다. 이들은 김원만 아오스딩과 김용분 가타리나 부부가 쌍호로 이전해 들어왔다가 그 아들 세대들이 결혼

69) 2009년 7월 25일 주민 인터뷰

적령기에 접어들 때 쌍호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평산 신씨 신춘원 가계도 신현수, 신현국, 신현정 3형제가 들어와 살기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는 신대원 신부도 배출했으나, 현재는 이들 모두가 쌍호마을을 떠났다. 또다른 평산 신씨 가계인 신기순도 쌍호마을에 들어와 단대만 살다가 타지로 전출해 갔다. 이밖에도 전주 류씨 류승대와 권오수 로사 부부도 2대에 걸쳐 쌍호마을에 살다가 마을을 떠났다. 현재 파악이 가능한 전출한 가계의 대수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쌍호공소를 떠난 신앙가계의 공소 내 거주기간

	10대	6대	5대	4대	3대	2대	1대
1	밀양 박씨 박창호집안	밀양 박씨 박병조집안	함창 김씨 김동수집안		안동 김씨 김동수집안	평산 신씨 신춘원집안	평산 신씨 신기순집안
2						전주 류씨 류승대집안	
						윤복만 집안?	

위의 도표에서 보면 앞의 밀양 박씨나 함창 김씨는 어느 정도 마을에서 터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을을 떠났다. 김동수, 신춘원, 류승대, 신기순 집안은 정착하려고 왔다가 바로 떠났다고 보겠다.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나 대구나 상주와 같은 지역거점 도시로 떠났다고 한다. 이들은 식민지 시대 혹은 해방 이후 등의 격변기에 자녀교육상의 문제로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 전출했을 것이다.[70]

70) 본고에서는 쌍호공소의 신자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쌍호에 머물 수 있었던 요인이나 이들이 쌍호를 떠나게 되었던 까닭에 대해서는 선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4. 쌍호 교우촌내 신앙가계의 역할과 영향

이상에서 진행된 신앙가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쌍호공소는 그 주민 구성원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쌍호마을에서 숫적으로 가장 번성한 가계는 밀양 박씨 박병조 가계였지만, 이 박병조 가계는 대구로 전출하여 지금은 그 번성했던 집안의 흔적을 쌍호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71] 본장에서는 쌍호공소 역대 회장의 존재를 통해서 신앙가계의 역할과 영향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쌍호공소 역대회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쌍호공소 역대 회장

	이름	재임기간	가계	부인	기타
1대	박상중(경태, 1854~1903)	1891~1892	밀양 박씨 박창호계		박창호의 조부
2대	윤복만(효주, 1838~1918) 안드레아	1893~1910			자료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
3대	김동화 아타나시오	1911~1914			
4대	박근하 요안	1915~1920	밀양 박씨 박창호계		박창호의 부친
5대	조연복 루도비꼬(1881~?)	1921~1934	함안 조씨 조경래계		조경래의 조부
6대	조재봉 베드로	1935~1955	함안 조씨 조봉덕 계		조옥순 수녀의 부친
7대	조봉덕 아오스딩	1956~1974	함안 조씨 조봉덕계, 조재봉의 동생		조상래 신부의 부친

71) 공소 내에서 전입 전출과 같은 사회변동이 일어난 과정과 그 변동의 요인은 별도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후고로 미룬다.

8대	우영식 가브리엘	1975~1990	단양 우씨 우영식계		
9대	김정상 마르띠노	1991~1992	영양 김씨 김정상계		김종필, 김종혁신부의 사촌
10대	허춘학 프란치스꼬	1993~1997	경주 허씨 허춘학계		허춘도 신부의 사촌
11대	김동길 사베리오	1998~2001	김해 김씨 김동길계		
12대	김정상 마르띠노	2002~2004	영양 김씨		
13대	김동길 사베리오	2005~2007	김해 김씨		
14대	허춘학 프란치스꼬	2008~	경주 허씨		

위의 <표3>에 정리되어 있는 역대 공소회장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쌍호의 공소회장이 1891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쌍호공소의 유래를 통해서 설명된 바 있다. 한편, 공소회장은 임명제였고 공소 초기에 임명된 회장들은 재임기간이 길었고 한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기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공소회장은 단기간 임기제로 정착되어 여러 가계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공소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지금은 이 마을을 떠난 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소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2대 회장 윤복만은 일찍이 타지방으로 전출한 듯하며, 현재 쌍호마을의 신앙계보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부친 윤정원(?~1871)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72] 회장직을 맡다가 이후 마을을 떠난 것 같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밀양 박씨 집안에서 공소회장을 하고 있다. 이 밀양 박씨 가계는 함창 김씨와 상호 인척관계에 있었다.

72) 『신앙의 뿌리』 p.75

즉, 박근하의 딸 박창수 마르타가 함창김씨 김동화의 손자 김유황 야고보와 결혼해서 이 두 집안은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 밀양박씨 가계에서는 쌍호공소 초기 단계에 4대에 걸쳐 회장을 담당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밀양 박씨 가계는 현재 쌍호마을에 연고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2대 회장 윤복만은 초대 회장 박상중이 바로 마을을 떠나게 되자 당시 이 마을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회장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는 병인박해 전 부친과 함께 쌍호에 와서 살았는데, 그의 부친은 1871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박경태(상중) 회장을 이어 1893년부터 공소회장을 맡아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충청도 청풍으로 이사를 가서 1915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73]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을 쌍호공소의 공소집으로 내놓았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윤복만은 이곳에 오래 살지는 않은 듯하고, 그의 후손도 현재는 쌍호에 남아 있지 않다.

이상에서와 같이 쌍호공소에서 초기 약 30년간은 주로 밀양박씨 가계에서 회장을 배출했다. 그 이후 회장은 함안 조씨 가계로 옮겨졌고, 함안 조씨가 무려 50여 년에 걸쳐 회장직을 맡아왔다. 특히 조봉덕 계는 조재봉, 조봉덕을 거치면서 약 40년간 회장을 역임했다. 그뿐 아니라 조봉덕의 동생 조종익은 이 마을에서 약 30년간 이장을 지냈다. 그 형은 공소회장으로 그리고 동생은 이장으로 약 30년을 보냈으니, 함안 조씨 집안에서는 마을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어 단양 우씨 우영식이 15년간 회장직을 맡아 보았다. 그 뒤부터 쌍호공소에서는 회장의 임기제가 적용되어 2년 주기로 회장이 교체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설령 이미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다시 회장직을 맡더라도, 회장의

---

73) 『신앙의 뿌리』 p.75, p.77. 그의 생몰년대는 1918년에 사망했다고 하면서 본문에는 1915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 확실치 않다.

연임은 제한되고 있다.[74]

회장의 교체는 쌍호마을의 여론주도층이 교체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초기에는 밀양박씨 중심으로 쌍호공소가 운영되다가, 후기에는 함안 조씨 쪽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또한 일종의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장직이 다른 가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 회장을 맡았던 가계의 사람들은 쌍호마을에서 전출되어 가기도 했다. 밀양박씨 가계가 쌍호를 떠나려고 해서 함안 조씨 쪽이 회장을 맡게 되었는지, 아니면, 밀양 박씨들이 회장직을 넘겨준 다음 홀가분하게 이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변화가 쌍호공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다만 쌍호를 떠난 그들이 현재 대구와 상주 등지에 각각 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주로 더 좋은 직업을 찾아 떠났다고 하겠다.

신자들의 이와 같은 공소전입과 전출은 교우촌의 생활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미루어 박해시대 교우촌에도 늘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회장직을 임기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장을 맡는 집안이 바뀌고 다양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쌍호공소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소운영도 조직화 되어 갔다. 쌍호공소에서는 우영식 회장이 되고 나서 회계장부나 신자 서류양식을 만들었다고 한다.[75] 현재 쌍호공소의 역대 회장들은 신규로 임명된 회장과 계속 협조하며 일을 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 근래 회장을 역임했던 회장들은 공동취사 시스템을 생각할 정도로 친숙하다.[7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쌍호공소 초기에는 한 회장이 장기

---

74) 현재는 김정상, 허춘학, 김동길이 2년씩 돌아가며 회장을 하고 있다(2009년 5월 18일 3차 인터뷰 유옥희 증언)

75) 2009년 7월 25일 최아녀 여사 증언.

76) 2007년 7월 28일, 허춘학, 김동길, 김정상 회장 증언

간 회장직을 수행했거나 또는 동일한 가계에서 회장직을 이어서 담당했던 일이 일반적이었다. 쌍호공소 회장의 경우에 8대까지는 회장의 임기가 비교적 긴 편이었다. 박근하 회장이 본당의 전교회장을 맡게 됨에 따라 쌍호공소 회장을 그만두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개항기를 전후한 시기 상당수의 공소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거의 없이 무한정에 가까웠다고 하겠다. 또 함안 조씨 가계에서도 쌍호공소의 회장을 50년간 역임했던 점도 함께 주목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소에서는 공소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호공소는 회장의 역할과 공소의 활동이 오히려 더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쌍호공소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었던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즉 농민운동과 공소생활이 연결됨으로써 쌍호공소는 그 운영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 되고, 구성원 전체가 단합되어 공소생활에 활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오면서 이제 쌍호마을에는 신앙이 달라도 농민운동을 계기로 하여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쌍호공소에서 회장직의 수행은 신앙생활의 심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주었다. 이는 쌍호 출신 수도자와 성직자 상당수가 회장 가계에서 배출되고 있음을 보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77] 이를 보기 위해 쌍호공소 출신 사제의 명단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77) 상호공소에서는 근래 수도자 성직자의 이름을 새긴 신앙비를 세웠다.

<표 4> 쌍호공소 출신 사제 명단[78]

내용번호	이름	출생	서품	부모	기타
1	조종율 베르나르도	1947.629	1975.7.6.	조유수/박엄성	함안 조씨 /조봉덕계, 조종운 수사의 동생
2	정희욱 안드레아	1948.9.16	1976.5.5.		정희완 신부의 형
3	조창래 빈첸시오	1952.4.15	1977.12.22	조종호 보니파시오/이춘우 데레사	함안 조씨 / 조종율 신부의 조카/ 조인래 신부의 사촌
4	권혁시 모이세	1952.12.29	1978.7.5.		
5	조상래 다미아노	1953.4.5.	1981.2.2.	조봉덕/최안나 안나	함안조 씨, 조창래 신부의 삼촌/ 조인래 신부의 형
6	김종필 볼리까르보	1953.2.23.	1982.2.20.	김약오봉 야고버/오재은마르타	영양 김씨 김정상 가계/김종혁 신부의 형
7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1957.9.5.	1983.1.26.	권오덕 그레고리오/신복순 바올라	안동 권씨, 주교
8	김종혁 에바리스도	1955.4.21.	1983.2.2.	김약오봉/오재은	영양 김씨, 김종필 신부의 동생/김정상의 사촌
9	박해식 리보리오	1962.12.9.	1992.8.22.	박창환 알렉스/정길자 안나	밀양 박씨[79] 박비오 신부, 박은희 수녀와 남매/박근하 회장의 손자

78) 물미에는 신자가 생긴 지 약 60여 년이 되는 1958년 3월 19일, 金榮玉 요한, 金圭泰 디모테오 두 명이 신부가 되었다. 수녀로는 1966년 金敬粉 스파니슬라오와 金榮愛 클레멘스가 함께 서원했다.(김정숙의 앞의 논문 「尙州 물미 敎友村 會長의 인적맥락과 그 영향 -1899~2007-」 참조)

79) 쌍호공소 신자들은 이 집안이 상주로 나가 살기 때문에 이 집안을 잘 모른다고 한다.

10	신대원 요셉	1962.6.17	1990.7.1.	신현수/이옥자 데끌라	평산 신씨[80] / 권혁만의 부인 이필문 데레사의 조카[81]
11	조인래 미카엘	1966.10.30.	1993.7.17	조종익 베네딕도/유옥희 사비나	조종률 신부의 조카/조창래 신부 사촌/ 조상래 신부의 동생
12	정희완 요한	1958.4.13.	1993.7.17		정희욱 신부와 형제
13	허춘도 도마	1966.12.30.	1994.8.14	허오룡 요셉/김정숙 카타리나	허춘학의 사촌
14	박비오 비오	1969.8.30.	1998.8.25.	박창환 알렉스/정길자 안나	밀양 박씨[82] / 박해식 신부, 박은희 수녀와 남매/박근하 회장의 손자

위의 <표 4>에는 14명이 사제가 소개되고 있다. 즉, 쌍호공소는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를 비롯하여[83] 조종율 베르나르도, 정휘욱 안드레아, 조창래 빈첸시오, 권혁시 모이세, 조상래 다미아노, 김종길 볼리까르보, 김종혁 에바리스도, 박해식 리보리오, 신대원 요셉, 조인래 미카엘, 정희완 요한, 허춘도 도마, 박비오 비오 등 14명의 사제를 배출했다.

쌍호 공소에서 첫 사제가 배출된 때는 1975년이었다. 쌍호공소가 전통적 교우촌임을 감안할 때 첫 사제 배출시기는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 이는 지방의 공소 출신신자들이 정규 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못했고, 경제적 여건 등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쌍호공소에서 배출한 첫 사제는 회장집안에서 나왔다. 즉, 함안 조씨 조봉덕 가계에서 첫 사제가 배출되었는데, 이때는 이

80) 부인들이 마을을 떠난 집안이라 잘 모른다고 한다.

81) 신대원 신부는 유옥희의 혼례미사를 집전했다.

82) 주민들은 이 집안이 상주로 나가 살아서 연락이 없다고 했다.

83) 도표에서는 쌍호마을의 상황 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제에 서품된 연도를 표시했다.

집안에서 40여년 간 맡아오던 공소회장을 끝낼 즈음이었다.

그리고 같은 집안에서 조창래, 조상래, 조인래 신부 등이 배출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양 김씨 집안에서 김종필 신부, 김종혁 신부가 나왔다. 그리고 밀양 박씨 박창호 집안은 외지에 나가서도 박해식 신부, 박비오 신부 등을 배출했다. 이외에도 허춘학 회장 집안과 이곳에 머물렀던 평산 신씨의 신대원 신부. 그리고 쌍호에 잠시 거주한 바 있었던 정씨 집안의 정희완 신부 등이 있다. 또 권혁시 신부도 구체적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쌍호공소와 연계되고 있었다. 이때 안동 권씨 집안에서 나온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는 2001년 주교로 성성되었다.[84]

사제를 배출한 집안을 보면 쌍호공소 초기 회장직을 수행했던 밀양 박씨 가계, 그리고 후기 회장을 했던 함안 조씨 가계, 최근에 쌍호공소에서 주목되고 있는 영양김씨 가계를 들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회장의 집안의 신앙이 돈독하여 성직자를 배출했거나, 아니면 회장이 되어서 신부를 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쌍호공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제를 배출한 가계뿐만 아니라 수도자를 배출한 집안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다. 쌍호공소에서는 김난주 글라리스 수녀가 1961년에 처음으로 수도원에 입회하여 1971년에 이곳 출신 첫 수도자가 되었다. 이는 쌍호 출신 첫 사제가 배출된 해보다 약 4년이 앞섰다. 그때부터 약 50년간 조종운 뽈리치도 수사, 김계매 사비나, 양필분 마리나, 김종남 다니엘, 박은희 야고버, 박명숙 안젤라, 양춘옥 아가다. 조옥순 루시아, 김흥순 치릴라, 김홍선 바르짓다, 김리나 테오판 등 12명의 수도자가 쌍호 공소에서 나왔다.

이들은 각각 밀양 박씨, 영양 김씨, 함창 김씨, 함안 조씨 가문에서 배출되었다. 쌍호마을에서 살다가 외지로 전출하여 사제나

84) 『신앙의 뿌리』 p.119

수도자가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밀양박씨, 함창김씨 등은 쌍호마을로부터 전출해 간 이후에도 많은 수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쌍호출신 수도자

	이름	출생	입회일	종신서원	수도회	부모	기타
1	조종운 뿔라치도	1944.10.20	1962.3.17	1972.3.21	베네딕도	조유수 바오로/박엄성 카타리나	함안 조씨, 조종율 신부의 형
2	김난주 글라리스	1938.6.10	1961	1971	예수성심시녀회	김임규 바라바/김봉순 베로니까	함창 김씨[85], 김홍순 수녀자매의 사촌
3	김계매 사비나	1951	1973.5.15	1983.3.25	성모영보	김태영 요사팟/김순이 아멜라	함창 김씨
4	양필분 마리나	1953.4.14	1974.9.4	1984.5.21	성모성심		양춘옥 수녀와 자매
5	김종남 다니엘	1950.5.19	1978.11.29	1987.2.20	성모성심	김약오봉[86] 야고보/오재은 마르타	영양 김씨, 김종필 신부, 김종혁 신부의 누나
6	박은희 야고보	1959.6.18	1980.2.27	1987.2.20	성모성심	박창환 알렉스/정길자 안나	밀양 박씨, 박해식 리보리오신부, 박비오 비오 신부 동생/박근하 회장 손녀
7	박영숙 안젤라	1957.12.10	1980.4.24	1989.2.20	샤르트르 바오로	박홍례 요아킴/김언순 말다	밀양 박씨, 박병조 집안
8	양춘옥 아가다	1961.5.16	1983.4.7	1986.2.2	샤르트르 바오로		양필분 수녀와 자매
9	조옥순 루시아	1959.9.10	1985.4.11	1992.2.2	샤르트르 바오로	조재봉 베드로/최양식 베로니카	함안 조씨, 조상래 신부의 사촌[87] 조재봉 회장 손녀
10	김홍순 치릴라	1955.10.28	1984.3.30	1992.2.20	성모성심	김유황 야고보/박창수 박말다	함창김씨, 김홍선 비르짓다 수녀와 쌍둥이 자매
11	김홍선 비르짓다	1955.10.28	1984.8.28	2004	성모성심	김유황 야고보/박창수 박말다	함창 김씨, 쌍둥이 자매
12	김리나 테오판	1972.5.30	1997.3	2001.2.9	포교성베네딕도(대구)		

쌍호공소에서 성직자나 수도자가 배출되는 현상은 전체적으로 물미공소의 예와 흡사하다.[88] 즉 공소가 생긴 지 약 60년간은 신학생이 없었다. 그리고 수도성소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나오고 또 몇 년 쉬다가 계속되는 점도 흡사하다. 그뿐 아니라 같은 집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사제성소가 나오는 점도 그렇다. 수도회도 몇 개로 압축되어있음도 같은 현상이다. 다만 이곳에서는 성모성심회로 들어가는 예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종남 다니엘 수녀는 성모성심회가 정식으로 인가받기 이전인 초창기에 입회했던 수녀이다. 이와 같이 쌍호공소에서 배출된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일정한 시기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일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쌍호공소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성직자 수도자의 성소가 특히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호공소의 여러 가계 가운데 함안 조씨 가계에서 수도자와 성직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 외에는 쌍호공소의 여러 집안에서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골고루 배출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쌍호마을은 집성촌이 아닌 각성바지들이살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혼인이 가능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각 가계가 서로 인척관계로 얽혀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장소에서 오래 살다 보

---

85) 쌍호 공소의 부인들은 김난주 글라리스는 상주로 전출한 가계 출신이므로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신앙의 뿌리』 p.247에는 그들의 조카 중 김보나라는 **수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김리나 테오판 수녀인 듯하다.

86) 『신앙의 뿌리』 p.246에는 김약오봉이라고 나오는데, 김약봉이 아닌가 한다. 일단 『신앙의 뿌리』표기에 따른다.

87) 2009년 7월25일 구술증언 때 조창래의 동생이라고 했다. 조창래는 조창래 신부와는 다른 동명이인자이다.

88) 함창천주교회 퇴강공소, 『天主教奉道傳教百年史』 1999, pp.11~12; 김정숙의 앞의 논문 「尙州 물미 教友村 會長의 인적맥락과 그 영향 -1899~2007-」 참조

니 중첩된 인척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쌍호마을에서 이루어진 중첩된 혼인관계의 한 사례로는 장기간 회장을 역임했던 조봉덕 가계를 들 수 있다.

쌍호공소의 6대 회장 조재봉는 6남매를 두었는데 그의 딸 조옥자 필로메나는 안동 권씨 권혁수 안토니오 결혼해서 안동 권씨 집안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권혁주 주교는 조재봉 회장의 외손자이다. 조재봉의 또다른 딸 조옥희 베네딕다[89]는 영양 김씨 김정상과 결혼했다. 또한 조재봉의 동생 조유수는 박만득의 딸 박엄정 카타리나와 결혼했다. 한편, 2대 아래인 조경순 데레사는 허명학 바오로와 결혼했다. 이렇게 하여 장기간 회장직을 역임하고 가족 구성원의 인원도 많은 함안 조씨는 안동 권씨, 영양 김씨, 밀양 박씨, 경주 허씨와 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90]

한편, 영양 김씨 김정상의 조카인 김성현 비오는 풍기 진씨 진상국의 딸인 진은정 말따와 혼인했다. 진상국은 농민운동이 계기가 되어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다. 또 김정상의 누이인 김귀옥은 김해 김씨 김동길 사베리오와 결혼했다.[91] 이렇게 함안 조씨 집안이 김정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집안까지를 계산한다면, 함안 조씨 집안은 두 가문과 더 인척관계를 갖게 된다. 즉 함안 조씨 집안은 쌍호에 거주하는 일곱 가문과 인척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함안 조씨 가계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가계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쌍호공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 혼인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92] 쌍호마을의 가계

89) 마을에서는 분다라고도 쓰고 있으나, 교회의 현행 기준에 따라 베네딕다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90) 2009년 7월 25일 유옥희 등 여성주민들 증언.

91) 2009년 7월 25일 유옥희 등 여성주민들 증언.

92) 2009년 7월 25일자 증언에서 쌍호의 여성주민들의 혼인에 대해 증언을 들었으나 이는 후고로 작성하겠다.

를 조사해 보면, 사실 마을 전체가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찾아진다.

쌍호공소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에 신자들의 代父, 代母 관계까지 대입시켜보면, 쌍호마을 주민간의 연결은 더욱 확대된다. 더욱이 공소 신자들은 회장을 대부로 모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친관계(神親關係)를 통해서 마을 주민간의 상호 관계의 밀도가 더욱 깊어진다. 쌍호공소의 조종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소회장은 伯父인 조재봉이었고, 매 주일이나 첨례일 독서 주송은 자신의 부친 조유수 바오로가 했다고 한다. 정동근은 1912년 갓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영세 대부는 윤복만 공소회장이었다. 그리고 9살(1920년)때 공소에서 드망즈 주교로부터 견진성사를 받을 때는 박근하 회장이 견진 대부를 섰다[93] 결국, 교우촌은 혈연으로 결속되어 있거나, 대부모/대자녀 간의 결연을 통한 신친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자들의 구성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리고 특히 회장을 역임했던 집안에서 사제나 수도자들을 배출하면서 쌍호공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한편, 교우촌은 동일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옹기제조와 농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종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경제생활에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공소는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에 혈연적인 연고까지 중첩되어 가면서 상호 긴밀한 공동체적 정신이 실천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관측한 선교사들은 교우촌의 협동정신과 상호부조 관행을 보고 다음과 같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이가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전혀 아무 것도 없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줄 알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거두어 주

93) 조종호 증언.『신앙의 뿌리』p.126

니, 이 불행한 시절보다 우애가 더 깊었던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을 목격한 노인들은 그 때에는 모든 재산이 정말 공동으로 쓰여졌었다고 말한다. 신입교우 중에서 남보다 학식이 많은 이들은 자기 집안이나 이웃에 있는 무식한 이들에게 기도문과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본분으로 알았다. 끝으로 더 헌신적인 몇몇 신자들은 자기들의 지식이나 성격이나 명성으로 얻었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하느님의 은총의 충동을 따라 조선천주교회의 재조직이라는 어려운 일에 온전히 자신을 바쳤다."[94]

이와 같은 공소생활은 물론 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해시대 공소생활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져 있다. 회장은 전례를 관리했다.[95] 신자들은 매주일 공소첨례로 공소회장의 지도하에 오전에 첨례를 드리고 오후는 파공을 지켰다. 교리문답은 공소회장이 가르쳤다. 쌍호공소의 경우에도 조연복 회장은 엄격해서 교리문답을 찰고할 때 문답을 잘못 외우면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렸다고 한다. 물론 마을의 선배들도 아동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정동근은 15살 때 당시 보통학교에 다니면서 공소에 야학을 열어서 아동들을 가르쳤다. 또한 공소 청년들은 본당 신부의 위임을 받아서 공소에서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한편 조종호의 모친 박엄정은 원소 등지로 다니면서 병자방문과 외교인들을 권면해서 입교시키고 문답을 가르쳐서 영세시켰다.[96]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깊은 신앙에 젖어들게 된다. 양필분 마리나 수녀는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사셨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당시 쌍호의 아이들은 뱀 한 마리를 죽이면 마귀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여 뱀을

94)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중, 1986, pp.16~17
95) 본고 주 1 참조
96) 우영식 증언, 『신앙의 뿌리』 p.127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함이 원칙처럼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자들의 관행은 쌍호마을의 비신자 아동들에게도 전파되어 뱀을 보면 "예수 마리아"라고 하며 끝까지 따라다니며 죽였다고 한다. 신자나 비신자의 경우를 막론하고 동네 아이들 놀이도 모두 만과 후에나 할 수 있었다.[97]

이렇게 신앙으로 뭉쳐진 생활터전이었던 쌍호공소는 늘 시대의 강풍을 심하게 맞았다. 그 강풍은 쌍호공소의 신자들이 외교인과 함께 살고 있어서 더 컸던 것 같다, 박해시대에 눈을 피해서 신앙을 지켜 오던 쌍호공소는 일제시대 전시기에 걸쳐 늘 통제받았고, 말기에 들어가면서는 심하게 탄압을 받았다. 쌍호공소는 신앙과 생활의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다. 그리고 그 공동 연대감은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가톨릭 농민회 운동으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생명공동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고로 작성하겠다.

5. 닫는 글

쌍호마을은 역사가 깊은 교우촌이다, 그리고 모든 공소가 그렇듯이 쌍호공소도 일종의 생동하는 유기체이다. 즉 공소 자체가 사회의 변동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요람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회변동에 적응해 가면서 그침없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는 일은 공소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필자는 쌍호공소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우촌내에 작동되고 있던 몇 가지 특성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쌍호공소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

97) 양필분, 「나의 신앙, 나의 고향」『신앙의 뿌리』 p.185

쌍호마을은 행정지리적으로나 공소 구성원에서 변화가 많았다. 이 마을은 박해시대 신자들이 모여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891년에 이르러서야 공소가 설치되었다. 공소가 설치된 이후 쌍호공소는 낙산, 퇴강, 예천, 안동, 다인, 안계 성당 등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발전해 왔다. 물론 공소의 명칭도 바뀌었다. 원래 청호리 공소라 불리던 곳이 1914년 도호동과 합쳐져 쌍호로 불리게 되었다. 쌍호는 1리, 2리로 나뉘어 약 120여명의 주민이 있는데, 그중 쌍호 1리가 교우촌이다. 현재 이 마을은 신자들과 외교인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교우촌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쌍호마을은 200년간을 이어오면서 최소한 13개 姓氏에 속하는 22 家系가 살아왔다. 이 마을의 입향조는 본래 밀양 박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이곳에는 타성들이 들어와 합류하게 되었고, 또 떠나기도 했다. 따라서 쌍호마을의 신자들에 관한 누적 통계에서는 밀양박씨가 숫자적으로 가장 많았다. 밀양박씨는 그들과 사돈관계였던 함창김씨와 함께 쌍호공소 초기의 공소회장직을 맡아보면서 마을의 터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마을을 떠나, 상주와 대구 등지로 옮겨갔다. 또한 신춘원, 신기순, 류승대, 신기순 집안도 마을을 떠났다.

그래서 현재 쌍호공소의 신자구성에는 초기와는 달리 함안 조씨 가계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여러 성씨들이 상호 순차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력이 생겼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함안 조씨 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회장을 배출했고, 이 가계에 속한 사제나 수도자 수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함안 조씨 집안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각 신앙가계에서 골고루 회장, 사제, 수도자들이 배출되어, 쌍호공소에 새로운 활동에너지들을 제공하고 있다.

쌍호공소는 마을 내 혼인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가령, 함안 조씨는 안동 권씨, 영양 김씨, 경주 허씨, 밀양 박씨와 직접

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 또 영양 김씨 김정상은 김해 김씨, 풍기 진씨와 혼인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마을 전체가 인척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공소는 신앙공동체, 경제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혈연관계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교우촌을 신앙공동체 중심으로만 이해되어 왔던 기존의 견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쌍호공소는 시대의 정신을 올바로 파악하고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그 시대에 부응하는 가톨릭정신을 실천해 갔다. 쌍호공소는 日帝에 저항해서 신앙을 지켰다.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화되어 민족 내부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때에도 이 혼란을 꿋꿋하게 견뎌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농민운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생명공동체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새로운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 쌍호마을에 모여들었다.

또한 쌍호공소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는 출향한 가계에서도 수도자와 성직자가 다수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쌍호를 자신들의 신앙요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이 마을에 살았던 경험들이 언제나 신앙의 못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쌍호공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과 환경운동에 종사는 사람들은 신자든 비신자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심화시키거나 새롭게 배우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곳 출신 사제들은 한결같이 쌍호마을이 점차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잃어가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공소마을에서의 기도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떠나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생활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쌍호공소의 사회운동이 좀 더 기도와 동반되기를 주문하기도 한다. 한편 신자들은 쌍호마을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성소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쌍호공소가

이웃과 같이 활동하는 점. 농촌 살리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또 도시와 연결되어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등은 쌍호공소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소 출신 사제들이 은퇴해서 쌍호마을로 돌아오게 된다면 쌍호공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인 1903년 조아요 신부는 사목보고서에서 자신의 구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자들은 청호리(쌍호) 신자들이라고 했다. 쌍호는 지금도 아름다운 공소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료>

『Journal de Mgr. Mutel』 1890~1920년.

『Journal de Mgr. Demange』 1911~1938년.

Dallet,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편, 『김보록(로베르』 신부 서한집』, 1995

_____, 『『가실본당 초창기 주임신부들의 서한집』, 1995

주민 인터뷰 자료 : 조종익, 우영식, 김정상, 허춘학, 김동길, 유옥분, 최아녀, 김귀옥, 이경희, 정순이, 반향숙, 권옥이, 전미자, 조광래

<저서>

가톨릭신문사, 『경향잡지』28, 1934.

구본식 · 마백락, 『옛 공소의 어제와 오늘』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0,

국립중앙박물관,『고문서』(호적류), 2005
김옥희,『박해시대 교우촌』, 계성출판사, 1983,
농촌공소실태조사 연구위원회,『천주교 농촌공소(公所) 실태보고서』, 분도출판사, 1984,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대구본부,『産地旅情』, 1996,
천주교 안계성당 쌍호공소.,『쌍호공소 200년, 신앙의 뿌리』, 2003
천주교 예천교회,『예천본당 60년사』, 1995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7권, 1978,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뮈텔주교일기』Ⅰ, 1986,
_____ 역주,『뮈텔주교일기』Ⅲ, 1993,
한국교회사연구소편,『드망즈 주교 일기』1987,
함창천주교회 퇴강공소,『天主教奉道傳教百年史』, 1999

<논문>

김승주,「韓國教會指導書들을 통하여 본 公所會長의 位置와 役割」大建神學大, 석사논문, 1979,
金貞淑,「尙州 물미 教友村 會長의 인적맥락과 그 영향 -1899~2007-」『한국사회와 천주교』, 2007, pp.245~299
_____,「쌍호공소와 공소회장의 역할」『부산교회사보』Newletter 64, 2009.10.21. pp.56~71
김정환,「지방리공소」위의 책, pp.211~244
김혜숙,「19世紀 '甕器 教友村'의 信仰生活과 甕器紋様」『教會史研究』30, 2008, pp.75~104
방성근,「수리산 공소와 최양업 신부」『한국사회와 천주교』2007, pp. 109~129
_____,「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教會史研究』31, 2008, pp. 27~46
劉仁實,「19세기 언양 천주교 교우촌 사례분석」『釜大史學』25·26 합집, 2002, pp.23~60
윤선자,「일제 강점하 천주교 회장의 현황과 교육」, 위의 책, pp.369

~397
이창언,「옹기교우촌의 분포와 특성 - 경상북도 칠곡지역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42, 2009. pp.91~124
조현범,「모방신부의 조선전교」『교회사연구』22, 2004, pp.5~29
차기진,「모방신부와 기해박해」『사목』233, 1998, pp.92~100
하성래,「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그 주변 교우촌들」『敎會史硏究』23, 2004, pp.165~208
http://wonsoon.com/tag/2642
http://www.djhistory.org/technote6/board.php?board=djhistory&page=2&command=body&no=42

Catholic Community's Establishment and Changes Viewed through Ssangho Gongso

Kim, Jeong-Sook

Ssangho village is a historic community of catholic believers. Like other Catholic communities, the Ssangho Gongso is a kind of live organic body. Gongso has adapted itself to social changes and has kept its function as a cradle of faith continuously. Accordingly, to understand how Gongso could preserve its continuity while adapting itself to the social changes is crucial to make a right choice for its future. The author interviewed residents of the Ssangho Gongso, referred to documents from Church and Government, and found out several characteristics of Gyouchon, the Catholic community.

In this paper I first of all examine the historic transition process of the Ssangho Gongso. Ssangho village has changed a lot in community members both administratively and geographically. This village started to be formed by the faithful under the religious persecution era, and in 1891 Gongso, a Catholic community was established. Since its establishment, Ssangho Gongso was affiliated to Naksan, Toegang, Yecheon, Andong, Dain, Angye Bondang, etc. While its affiliation was changed, it was called differently. It was used to be called 'Cheongho-ri Gongso' and in 1914 it was incorporated with Doho-dong and called 'Ssangho'. By 1926, however, it was called 'Cheongho'.

Ssangho is divided into 1 ri and 2 ri with about 120 residents. Ssangho 1 ri is Gyouchon, the Catholic community. Currently the faithful live along with non-believers in this village. However, they have preserved their tradition. Ssangho village has a 200 year-old history, and 22 family lines of at least 13 different family names. The founder of this village is presumed Milyang Park family. Since then other family lines joined this community or left to other places. Therefore, in the accumulated statistics about the faithful in Ssangho village Milyang Park family line appears most in number. In the

early days Milyang Park family line and Hamchang Kim family line who were in-laws took care of the community as lay leader, and formed the village. However, in 1960s and 1970s they left the village and moved to Sangju and Daegu. In addition, Shin Chunwon, Shin Gisun, Rye Seungdae and Shin Gisun family also left.

As a consequence, in the current Ssangho Gongso, unlikely early days, Haman Jo family line played more important role in forming members of the faithful. Since 1970s several family lines rotated the head of the village and had a new driving force. Even though, so far many head of the village came from Haman Jo family line for a long time,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priests and people who entered into religion are from this family. Excluding Haman Jo family, heads, priests and people who entered into religion were evenly from the rest of families, which provides a new energy into Ssangho Gongso.

Residents in Ssangho Gongso are interconnected through marriage. For example, Haman Jo family are in-laws with Andong Kwon family, Yeong yang Kim family, Gyeongju Heo family and Milyang Park family. Kim Jeongsang of Yeongyang Kim family is connected with Gimhae Kim family and Punggi Jin family through marriage. Therefore, entire community are related by marriage. Through this fact, we can know that Gongso is not only the community of religion and economy but also is deeply related among members based on blood relationship. So far Gyouchon was considered only as the community of religion. However, this fact makes possible to reexamine the existing theory from a new point of view.

While Ssangho Gongso grasped the spirit of the times, overcame the difficult situations, they practiced their Catholic faith. Ssangho Gongso kept their faith while resisting the Japanese Imperialism. Even there was an internal disorder among in the nation due to conflict of ideology, they withstood firmly. From the 1970s this community became an important stronghold of farmers' movement, and in the 2000s it started a campaign for a life community. Complying with the demands of the era, new believers and

non-believers came to settle in Ssangho village.

Another characteristics of Ssangho Gongso is that there are also a great number of priests are from those families who left this community. And most of them introduce Ssangho as their cradle of faith. This means their experience in living in this community always functions as the seedbed for their faith. Moreover, it is confirmed that residents who are engaged in an agricultural or environmental campaign strengthened villagers' faith or learnt the religion newly irrespective of community members' religion in Ssangho Gongso.

Key words : Ssangho Gongso(station) Bishop Demange, Bishop Mutel, Catechist, Family line Cho de Haman, Milyang Park family line, Catholic Community, Religious family line

김정숙
소속: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41-1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053-810-2216
전자우편: therese@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